



G20에 임하는 중국의 입장과 전략

지 만 수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jmansoo@kiep.go.kr, Tel: 3460-1201)

박 민 숙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위원 (mspark@kiep.go.kr, Tel: 3460-1145)

1. G20에 대한 중국의 기대
2. 회의별 중국의 주요 관심 의제
3. 중국의 강조점 변화
4. 향후 전망: 중국의 이해관계와 한국



주요 내용

- ▶ 중국은 선진국과 신흥국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최고 협의기구(premier forum)로 G20가 부상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음.
- 다만 중국은 기존질서의 전면적 재편보다는 점진적인 개혁과 발언권 확대를 추구한다는 입장임.
- ▶ 후진타오 주석은 세 차례 G20에서의 연설을 통해 성장의 회복, 국제금융·통화시스템의 개혁, 보호주의 반대, 개도국 발전의 지원, 세계경제 균형 회복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음.
- 국제금융체제 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의 원칙과 분야를 제시하고(워싱턴),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런던), 위기를 빌미로 한 보호주의 대두의 방지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위기 이후의 균형적 성장과 관련하여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근원은 선진국과 개도국(南北) 간의 발전의 격차라는 입장임(피츠버그).
- ▶ G20에서 중국의 관심은 초기의 위기극복 →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등한 협력 구조 구축 → 위기 이후의 질서 재편 주도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달러체제에 대해서는 초기에 주장했던 기축통화의 다변화 원칙에서 물러서서, 달러발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독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강조점을 전환함.
- 국제금융체제 재편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의 개혁성과를 평가하고 개혁성과의 공고화와 체계화에 관심을 둠.
- ▶ 향후 G20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G2)이 위기 이후 세계질서의 재편을 주도적으로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 ▶ G20 내 각국 중에서 한국과 중국은 비교적 유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음.
- G20 내 국가들 중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속도, 국제금융체제 내에서의 발언권 확대, 높은 제조업 비중 및 교역 의존도, 달러보유고 등 측면에서 한국은 중국과 유사한 입장임.
- 또한 한국은 선개도국간 가교국가이자 2010년 의장국으로서, 중국은 신흥국의 대표주자로서 향후 G20 체제의 유지와 역할 확대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다고 평가됨.

1. G20에 대한 중국의 기대

■ 중국은 미국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세계적 협력기제(global governance)로 G20가 부상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음.

- 중국은 2003년 6월 프랑스 G8 정상회담 이후 동 회담에 초청받아 참석하여 왔으나 선진국 중심의 논의구조¹⁾ 속에서 고립되어 왔음.

- 하지만 G20는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 신흥국의 대표 국가로서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또한 G20 안에서 논의될 세계경제의 균형 회복과 위기 이후의 질서 구축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자임하고 있음.

- 중국은 2000년대 들어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하겠다는 입장임.²⁾

■ 하지만 중국은 기존의 국제통화, 금융, 무역질서에 대한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혁을 지지하면서 국력에 상응하는 발언권 확대를 요구한다는 입장임.

- 중국은 위기 이후 이루어진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의 개도국 지분확대 결정,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결제은행(BIS)에 대한 개도국 참여 확대 등에 만족을 표시함.

2. 회의별 중국의 주요 관심 의제

■ G20 주요 의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2008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G20 정상회담 이래 세 차례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후진타오 주석의 연설을 통해 표명되고 있음.

1) 중국은 G8에 대해 '마음맞는... 부자나라끼리의 모임'이라고 평가절하함(Yu Yongding 2004, *The G20 and China: A Chinese Perspective*).

2) 그러나 신흥국으로서 중국이 가진 능력 이상의 책임을 질 수는 없으며, G20 내에서 역할을 다하겠지만, G2 등 중국의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논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강조함(Tu Xinquan 2009, "China: a revisionist rather than a revolutionist," www.g20.utoronto.ca/newsdedesk/)

- 중국은 성장의 회복, 국제금융·통화시스템의 개혁, 보호주의 반대, 개도국 발전의 지원, 세계경제 균형 회복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신흥국이자 개도국으로서 자국의 입장을 밝힘.

가. 워싱턴 정상회담(2008. 11), "힘을 모아 지금의 난국을 넘자(通力合作 共度時難)"

■ 중국은 경제위기 극복과 위기 심화의 방지를 위해 1) 각국 거시경제정책의 협조, 2) 금융감독협력의 심화, 3) 위기극복에 유리한 세계경제 환경의 조성, 4) 국제금융체제의 개혁과 새로운 질서의 모색 등을 내세움.

■ 특히 국제금융체제의 개혁에 대해 신흥국이자 개도국으로서 입장을 반영한 원칙과 중점 조치들을 제시함.

- 전면성, 균형성, 점진성, 실효성 등의 원칙과 1)금융감독협력의 강화, 2) 국제금융기구의 개혁, 3) 지역금융협력 장려, 4) 국제화폐체제의 개선 등 중점 조치들을 제시함.

표 1. 중국이 제시한 국제금융체제 개혁의 원칙

원칙	주요 내용
전면성	국제 금융, 화폐, 기구, 규칙과 절차, 감독 등 전 분야 금융감독의 보편적 원칙을 반영하되, 발전단계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
균형성	당사자간의 이익균형, 참여 확대, 특히 신흥시장의 이익 체현
점진성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최종 목표에 도달
실효성	국제금융안정, 세계경제발전, 각국민의 복지증진에 유리해야

- 금융감독협력에서는 신용평가의 준칙 마련, 자본유동의 감시, 각종 금융 및 중개기구에 대한 감독, 금융상품의 투명성 등을 강조함.

- 국제금융기구개혁에서는 고위층 임명 메커니즘,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확대, 조기경보체제 건립, 금융기구의 수행능력 제고 등을 강조함.

- 국제통화체제 개선과 관련하여 점진적인 국제통화체제의 다원화를 통한 공동의 국제통화 안정 확보를 제시함.

■ 그밖에도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중국의 공헌을 강조하였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천명함.

나. 런던 정상회담(2009. 4), “손을 잡고 한배로 함께 건너자(携手合作 同舟共濟)”

- 제2차 런던 정상회담에서는 G20에 대해 “광범위한 대표성을 가진 G20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국제경제금융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중요하고 유효한 틀”이라고 적극적으로 평가함.
- 연설 제목에서도 위기 극복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이 G20를 통해 공동운명체(同舟共濟)로서 대등한 협력(携手合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
- 이는 향후 신흥국들이 참여하는 G20가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있어 지속적인 역할을 해야 함을 적극 주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런던회의에서 중국은 세계경제의 회복, 금융시스템 개혁, 보호주의 반대, 개도국 지원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는데, 각각 구체적인 방향과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세계경제의 회복과 관련하여 종래의 거시경제정책 공조뿐 아니라, 에너지절약, 환경, 신에너지 등의 분야가 위기 이후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6개항의 개혁 분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표 2.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혁분야 및 개혁방안

개혁분야	제시 내용	비고
금융감독	보편적 금융감독표준과 규범 제정, 신용평가기구 행동준칙과 감독제도, 주요 금융중심 조기경보체제 건립	
금융기구 활동	개도국 지원 확대, 출자금 증대, 개도국 우선지원, 유효한 구제금융 체제 건립, 지원 평가	개도국 지원 SDR 2,500억 달러 추가배분
금융안정 포럼 (FSF)	FSF 확대 지지, 활동 확대, 금융체제 개혁 참여	2009.3 FSB 확대, BIS 내 BCBS 확대
국제통화 기금 기능	준비통화발행국에 대한 거시정책 및 통화발행 감독	
IMF, WB 지배구조	개도국 대표성 및 발언권 확대	2011년까지 조기에 지분 재배 분기로 결정
국제통화 체제	준비통화발행국 통제 체제, 주요 통화 환율 안정, 국제통화 다원화 촉진, 관련 시간표와 로드맵 제출 요구	

- 한편 기축통화 발행국의 거시경제정책과 통화발행에 대한 국제적 감독 필요성도 제기함.
- 이는 ‘국제통화의 다변화(워싱턴 회의)’에 대한 원론적 제시에서 한걸음 물러서서 미국 달러화 발행에 대한 국제적 감독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음을 의미함.
- 한편 특히 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였으며, 보호주의의 각종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음.
- 즉 각국의 경기부양과 국내 취업 및 투자에 대한 보호를 명목으로 실시되는 보호주의, 해외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 구제조치의 남용, 개도국에 대한 불합리한 수출제한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함.
- 이러한 보호주의 방지를 위해서는 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조속한 진전을 통해 세계 무역자유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그밖에 금융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발전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선진국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였으며, 중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인민폐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음을 언급함.

다. 피츠버그 정상회담(2009. 9), “성장을 촉진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자(全力促進增長 推動平衡發展)”

-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런던회의에서 이룬 성과의 공고화를 강조하고,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바라본다는 중국의 시각을 제시하였음.
- 금융체제 개혁에 대한 런던회의의 합의는 전 세계에 대한 약속임을 강조하고, 세계금융의 상황이 호전된다고 해서 개혁의 결심이 약해지거나 목표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 새로운 국제금융감독체제가 갖출 원칙으로서 간단하고 실행이 용이할 것과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을 것을 제시하고, 그 목표로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금융감독 표준의 제정을 제시함.
- 피츠버그회의의 새로운 의제인 ‘견조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에 적극 대응함.

- 중국이 생각하는 글로벌 불균형의 본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위기 이후의 세계질서 구축 논의에서 의제 선점을 시도하였음.
- 저축·소비의 불균형, 무역수지 불균형, 부의 불균형, 자원 사용의 불균형, 국제통화체제의 불균형 등 글로벌 불균형이 만들어진 원인은 국제분업구조의 변화, 자본의 이동, 각국의 거시정책과 소비문화 등으로 다양하다고 지적함.
- 그러나 “불균형의 근원은 南北간 발전의 심각한 불평등”에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국 간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서만 세계경제가 견실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 일환으로 세계은행의 자금을 확충하여 빈곤국에 대한 지원 및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IMF는 유효한 구제금융시스템을 구축하며 특히 최빈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또한 선진 각국이 2002년 몬테레이 합의에 기초하여 개도국에 대한 원조의 규모를 늘리고, 녹색기술 등 기술이전을 강화하며, 개도국 각국의 특수한 발전경로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함.

3. 중국의 강조점 변화

- G20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의제와 내용은 회의의 진전과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분명하게 달라지고 있음.
- 동시에 회의의 진전에 따라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경제위기의 조속한 극복 → 발언권의 확대 및 대등한 협력 → 성과의 공고화 및 위기 이후 구상에 적극 참여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
- 우선 중국은 G20가 향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를 구축하는데 있어 G8을 대체하는 최고 협의기구(premier forum)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
- 런던회의에서 G20의 대표성과 유효성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피츠버그회의에서는 향후의 질서재편에 G20의 틀이 “충분히 이용”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언명함.

- 국제금융체제의 재편과 관련해 중국은 특히 런던회의의 성과(중국의 지분 및 발언권 확대)에 대체로 만족하면서, 위기의 완화에 따른 금융개혁 의지의 약화와 개혁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음.
- 관련 시간표와 로드맵의 제시 및 준수를 강조하고 이후 진행될 글로벌 금융감독 표준의 정립 과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음.
- 초기 워싱턴회의에서는 국제통화체제의 다원화 등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강조점이 점차 변화함.
- 런던회의에서는 기축통화 발행국으로서 미국의 책임과 달러 발행에 대한 국제적인 감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화하였으며, 피츠버그회의에서는 관련 언급을 자제함.
- 보호주의 방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입장을 개진함.
- 런던회의 이후 특히 위기 이후 미·중 간의 무역마찰을 이 슈화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일관되게 WTO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통한 공정·자유·개방의 무역 및 투자질서의 확립을 강조함.
- 경제위기를 계기로 DDA 논의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강화됨으로써 향후의 중국이 논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관측됨.

표 3. G20 회의별 중국의 입장 변화

의제	1차 워싱턴 (2008. 11)	2차 런던 (2009. 4)	3차 피츠버그 (2009. 9)
기초	위기대응 강조	대등한 협력 강조	위기 이후에 주목
G20 평가	유보적	광범한 대표성과 유효성 긍정 평가	충분한 이용과 책임을 강조
성장 및 균형	위기극복을 위한 거시정책 협조	에너지절감, 환경, 신에너지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제시	불균형의 근원은 ‘南北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국제금융체제 개혁	개혁원칙 및 개혁분야 제시	구체적 개혁방향 제시 발언권 확대 성과 시간표/로드맵 강조	합의의 준수 강조 개혁 후퇴 경계
달러체제	통화체제 다원화 제기	미국의 책임 강조 달러발행에 대한 국제적 통제 필요성 제기	언급 없음
보호주의 관련	보호주의 방지 언급 WTO/DDA 강조	보호주의 ‘반대’ 구체적 사례 예시 WTO/DDA 강조	공정·자유·개방 원칙 WTO DDA 강조

4. 향후 전망: 중국의 이해관계와 한국

가. G20 내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상 및 이해관계

■ 향후 중국의 G20 전략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요 의제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적 위상 및 이해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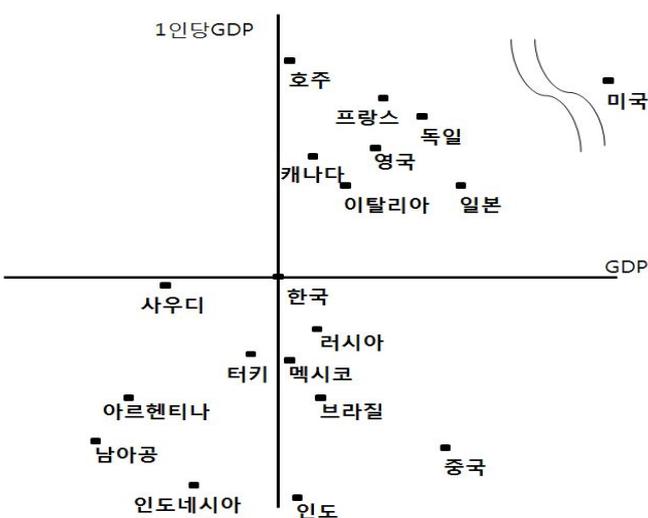
- 즉 경제회복에 따른 출구전략, 금융질서 재편, 보호주의 문제, 달러체제, 글로벌 불균형 해소, G20의 향후 발전 등 이슈에 관한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파악해야 함.

- 신흥 경제대국인 중국과,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는 한국의 이해관계는 서로 다른 부분이 많지만 동시에 상대적으로 유사한 부분도 공존함.

- 향후 G20 내의 이해관계 구조에 따라서는 중국과의 다양한 협력이 가능함.

- 중국: 2008년 GDP 4조 3,000억 달러, 3위, 1인당 GDP 3,263달러, 17위(G19 중)³⁾
- 한국: 2008년 GDP 9,291억 달러, 14위, 1인당 GDP 19,115달러, 9위(G19 중)

그림 1. GDP-1인당 GDP(2008년)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 향후 세계 경제성장률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2009년 경제성장률이 높고, 경제위기의 충격도 작게 받은 국가군에 속함.

- 유사한 상황의 국가들과 향후 글로벌 출구전략의 조화에 대해 공동의 입장을 형성할 수 있음.

○ 2009년 플러스 성장 7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아르헨티나, 한국, 사우디아라비아(이상 성장률 순)

○ 2007년 대비 성장률 감소폭 5% 이하 8개국: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중국, 한국, 미국, 캐나다(이상 감소폭이 작은 순)

○ 2009년 플러스 성장 + 감소폭 5% 이하 5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한국

■ 국제금융질서의 재편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은 모두 경제력에 비해 발언권이 작은 편에 속함.

- 중국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의 투표권 수가 최근의 조정 후에도 경제력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각 IMF 7위, 세계은행 5개국 공동 6위).

- 개도국 중에서 중국과 마찬가지로 경제력에 비해 과소 반영되어 있는 터키, 브라질 등과 함께 지분을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한국 역시 경제력에 비해 국제통화기금(15위/19국) 및 세계은행에서의 투표권 수가 작은 편(16위/19국)으로 중국과 유사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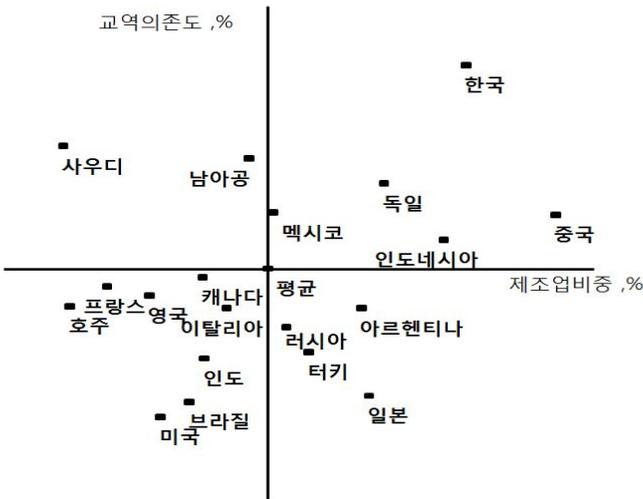
- 한편 양국은 모두 2009년 3월 확대개편된 금융안정위원회(FSB)와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회원국으로 진입함.

■ 중국과 한국은 모두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보호주의의 방지와 관련하여 협력 공간이 존재함.

- G20 평균에 비해 제조업 의존도 및 무역의존도가 모두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로는 한국, 중국, 독일, 멕시코, 인도네시아가 있음.

3) G20 중 2010년 EU 의장국 스페인, 초청국 네덜란드 등 제외.

그림 2. 제조업-교역의존도 비중



주: 아르헨티나, 프랑스, 러시아, 사우디, 터키(2007), 인도, 독일, 일본, 이탈리아, 미국(2006), 영국 (2005), 캐나다(2004) 수치 이용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nline; 호주통계청.

- 또한 중국과 한국은 1995년부터 2008년 사이에 각각 반덤핑 피소건수 1, 2위를 기록하고 있어(중국 677건, 한국 252건) 보호주의 움직임에 민감한 입장임.
- 양국은 모두 적극적으로 DDA 협상에 임하고 있으며, 경제 위기가 DDA 조기 타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⁴⁾

■ 양국은 모두 대규모 외환보유국(중국 1위, 한국 4위)이자 미국 국제대량 보유국임.

- 한국과 중국은 달러보유고 면에서 일본, 러시아, 인도, EU 등과 함께 달러체제의 안정에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응하는 발언권을 보유하고 있음.

■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와 관련되는 인민폐 평가절상 논란에 대해 G20 내 강력한 목소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음.

- G20 중에서 특히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프랑스, 인도, 멕시코, 터키 등은 중국에 대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국임(교역규모 대비 30% 이상).
- 그러나 이들 국가 중에서 전체 무역수지 면에서도 비교적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인도, 터키 등이 인민폐 절상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전망됨.

4) DDA 내 협상 관련 그룹을 기준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은 G6, 케언즈그룹, G33, NAMA 등에서 유사한 지위인 반면, G10, G20 등에서는 상이한 지위(G6: 농업협상주요국그룹, G10: 수입국그룹, G20: 강경개도국그룹, G33: 특별품목그룹 등)

- 한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국으로서 관련 압력에 동참할 동기가 강하지 않음.

표 4. G20 각국의 대중교역과 무역수지(2008년)

(단위: 백만 달러, %)

나라	대중수출	대중수입	대중무역수지	대중수지/대중교역	전체수지/전체교역
미국	71,457	356,319	-284,862	-66.6	-20.5
일본	125,039	143,626	-18,587	-6.9	흑자
한국	91,389	76,930	14,459	8.6	-1.0
독일	50,087	75,189	-25,102	-20	흑자
영국	9,025	47,658	-38,633	-68.2	-6.3
캐나다	9,925	43,863	-33,938	-63.1	흑자
멕시코	2,045	38,159	-36,114	-89.8	-3.7
러시아	21,049	34,721	-13,672	-24.5	흑자
이탈리아	9,486	34,611	-25,125	-57	-1.3
호주	27,068	32,435	-5,367	-9	-0.9
인도	9,664	30,276	-20,612	-51.6	-7.3
프랑스	13,241	28,070	-14,829	-35.9	-2.8
브라질	16,403	26,603	-10,200	-23.7	흑자
터키	1,437	15,658	-14,221	-83.2	-10.2
인도네시아	11,637	15,249	-3,612	-13.4	흑자
사우디아라비아	28,247	11,860	16,387	40.9	흑자
아르헨티나	6,390	7,104	-714	-5.3	흑자
남아프리카공화국	84	16	68	68	-4.3

자료: Kita.net(IMF).

■ 한국과 중국 양국은 최고 협의기구로서 G20의 위상이 유지되고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음.

- 중국은 G20를 계기로 처음으로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상응하는 발언권을 획득하였으며, 선진국과 신흥국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있어 중국에 유리한 논의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함.
-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이자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국가로서 G20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나. 시사점

■ G20는 이미 세계경제질서의 재편을 설계하는 최고 협의기구(premier forum)로서 제도화됨.

- 위기 극복 이후의 G20는 주요국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

에 따라 의제선점, 논의주도, 이슈별 제휴를 추구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 한국은 의장국이자 가교국가로서 G20에서 논의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 주요 참가국들의 입장과 전략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정한 중재(honest broker)에 임해야 할 것임.

■ 향후 G20는 사실상 미국과 중국(G2)이 주도하는 세계질서 재편의 장이 될 것에 유의해야 함.⁵⁾

- 미·중 양국의 복잡한 경쟁과 협력이 예상되는 속에서 한국은 미국 및 중국 모두와 밀접한 경제적·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음.
- 특히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성장 이슈나 인민폐 평가절상 논의 등 미·중 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는 이슈들이 존재함.
- 따라서 주요 이슈들에 대해 한국의 경제적 위상과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분명한 우리의 입장 정립과 표명이 필요함.
- 이를 통해 미·중 양국으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균형적이고 공정한 중재를 추구할 수 있음. **KIEP**

5) Geoffrey Garrett(2009), "G2 in G20: China, the United States and the Worl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United States Studies Centre.